

6.25 전몰용사 유해발굴 위한 개토제

육군 제8보병사단 국군 장병 유해발굴 사업

육군 제 8보병사단은 지난 12일 포천시 이동면 사직리에서 지역 민·관 대표들과 함께 6.25 전몰용사 유해발굴에 앞서 개토제를 지냈다.

이날 개토제는 6.25전쟁 56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중 전몰한 국군장병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정중히 안장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유해발굴작업을 시작하기 전 백두대간 산신과 지역 지신에게 예를 갖추기

위한 제사의 일환으로 의정부보호원 지청장, 육군제8단장, 포천시 재향군인회장, 4개보훈단체장 및 지역 주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 졌다.

전사자 유해발굴단장은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용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발굴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6.25 끝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시민들의 제보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중요한 단

서가 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강조하며 "한 구의 시신이라도 더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25 당시 격전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제보를 근거로 시작하게 된 이번 국군 장병 유해발굴 사업은 6월30일까지 포천시 이동면 사직리 이장산일대 19만평에서 6.25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육군 제 8보병사단은 지난 12일 포천시 이동면 사직리에서 지역 민·관 대표들과 함께 6.25 전몰용사 유해발굴에 앞서 개토제를 지냈다.

목회단상

영혼의 오아시스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세계 제2차대전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싸우다가 길을 잃고 사막에서 헤매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만 너무 목이 말라 신기루를 보게 되었다.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물이 넘실대는 오아시스였다. 그러자 연합군이 나 독일군이냐 할 것 없이 오아시스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뜨거운 모래 속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벌떡벌떡 달려 마셨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기도(氣道)가 막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갈증을 안고 사막에서 헤매이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다.(예레미야2장13절)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의 갈증을 풀겠다고 우물을 파고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운다. 술과 마약, 이것은 우물되기에는 커녕 인간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이다. 술과 마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신기루를 보고 물인줄 알고 모래를 들이마시는 사람과 같다. 이것은 존재뿐 아니라 생활과 가정,대인관계까지도 부식 시키고있다. 인간이 참으로 갈증을 해결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사랑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한복음7장 37,38절에서 고통하신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영혼의 갈증은 말끔히 해결된다. 왜일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의 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증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됨으로 방황치 않게 된다. 그러가 하면 어떤 고난 중에도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 수 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열려와 근심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곳 저곳을 끼웃거리 보지만 불안은 더욱 커진다. 이런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신다. 마태복음 11장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문의) 031-532-2489



우리 아파트

최고! 8

포천산호기시그린빌 아파트

'창문을 열면 나무껍질 흙내가 난다'

숲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상쾌한 아침공기가 돋보이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740-2번지 포천산호기시그린빌아파트는 모두 47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3천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2002년4월30일 준공했으며 34평형 73세대, 24평형 233세대, 17평형 173세대로 구성됐다. 임대아파트로 산호건설이 파산하여 2005년12월 부도처리됐으나 아파트 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모두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지난 3월5일 아파트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부도 이전보다 더욱 활기찬 아파트로 변했다.

채기영(사진) 관리소장, 황광순(사진) 입주자대표회장, 황금식(사진) 노인회장, 진종원(사진) 이장, 용광옥(사진) 부녀회장, 최선좌(사진) 감사, 노정순(사진) 총무, 김연옥(사진)개발위원, 이명규(사진) 청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산호기시그린빌 아파트 공동체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도가 발생하자 479세대중 290세대는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을 받았으며 189세대중 80~90세대는 경매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어 낙찰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먼저 실시한 사업은 화단 가꾸기와 계단보수작업, 소방도로 보수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 주민이 하나되어 실시하고 있다.

황금식 노인회장은 "2005년7월 포천시노인회에 가입해 정식 노인회 구성됐다"며 "국도에서 아파트입구까지 노인회 회원 20여명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정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채기영 관리소장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전환되어 새롭게 출발했



채기영 관리소장



황광순 입주자대표회장



황금식 노인회장



진종원 이장



용광옥 부녀회장



최선좌 감사



노정순 총무



김연옥 개발위원



이명규 청년회장

다"며 "주민들간 단합이 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산호 아파트 시설면에서는 승강기의 고장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적다는 점과 소방시설도 소방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고 화재발생시 즉각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점은 자랑할 만하다고 밝혔다.

지난3월18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황광순 회장은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로 돕는 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라



진입로 해결은 3개 단지 주민숙원사업

며 "부녀회원들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회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부녀회는 알뜰시장에서 모아진 수익금으로 노인회 어르신들 나들이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청년회장은 "여러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청년회가 앞장서겠다"며 "방법초소와 자율방범대도 조직하여 스스로 지키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광옥 부녀회장은 "공기가 포천에서 가장 좋은 웰빙아파트"라며 "이웃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정순 부녀회 총무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나무껍질 흙내가 난다"며 "노인회장님이 의정부에 사실 때는 편두통이 심했는데 이곳에 입주하면서부터 편두통이 사라졌다"며 자랑한다.

진종원 이장은 진입로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송우리로 이사할 마음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모든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숙원사업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좌 부녀회 감사는 "노인정에서 만나 할머니께 할머니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니 까 너무 좋아하시더라"며 "사랑만 있으면

모든 다 화합할 수 있다"고 한다. 김연옥 개발위원은 "모든 주민들의 뜻이 서로 화합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기구간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산호기시그린빌 아파트가 지난 3월5일 행정리 기지리4리로 편성됐다.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자 직책이 더 만들어지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많아져 활기가 넘치고 있다. 비록 '부도'가 발생했지만 주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지고 단결의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43번 국도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면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전 주민이 하나되어 상생의 마을, 웰빙마을, 생태마을로 가꾸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천200여명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아파트를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포천산호기시그린빌아파트 주민들의 노력 위에 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흐뭇한 경로당 순회 봉사활동 눈길

화현면, 지현2리 경로당 방문

화현면 생활개선회 회원 10여명은 지현2리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50여명에게 국수, 과일, 음료 등의 점심을 대접하고 경로당 청소, 부엌정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평소 노인봉사에 관심이 많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지역 내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뜻을 모으고, 자체 기금으로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화현면 생활개선회 조동숙 회장(54)은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활력을 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현2리 경로당에서 화현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은 노인들은 앞으로 이 같은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며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화현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00일 지현2리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50여명에게 국수, 과일, 음료 등의 점심을 대접하고 경로당 청소, 부엌정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워싱턴전문업체



세탁의 혁명, 100% 수출·임가공



완주섬유는 국내 최초로 국내 수출업체에서 양말류를 공급받아 정교한 기술력을 이용해 완벽한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수출하며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인환(완주섬유 대표)